



고창 SPO, 고창고 학교폭력예방 런치-특독 활동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고창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런치-특독 활동을 전개했다. 런치-특독은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학교에 방문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상담을 하는 등 찾아 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다. 고창고등학교는 기숙사형 학교로 藝·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강화를 하는 등 학교폭력 특별예방 활동 필요성이 있어 학교에 방문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 이날은, 학교전담경찰관·교육지원청, 패트콤, 교사·선도부 학생·청소년참여 정책자문단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교폭력 OUT, 런치 talk 등이라는 플래카드를 식당에서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플리더 및 홍보 물품도 배부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활동도 병행하였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학교폭력뿐만이 아닌 청소년 마약범죄가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가 15일 진안군 청 상량사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진안사랑장학재단과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5,000만원을 후원하기로 협약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전달식에는 감룡장학회와 함께 마이산탐사 붓다 봉사단(이재현 단장)이 참여해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1년 동안 모은 동전저금통 50개를 기부했다. 소년원 소년보호 어머니회 김도은 단장, 정해자 회장, 교정봉사단 박성균 단장, 탐벤드음악봉사단 천순희 단장, 진북문화관광연구소 남상준 소장, 마이산탐사 신도 등이 참석해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감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1,00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동전을 모아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진안군의 큰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2년째 장학금 후원과 함께 정성을 모아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이산 신도 후원금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노암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남원시 노암동은, 6월 시책 사업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에 구축하는 인적 자원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하 복지공무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암동 복지공무원의 대상 가구를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노암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 가구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노암동 직능 및 기관단체장 7명을 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그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노암동은 복지공무원 30명을 위촉해 이웃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계획이며 퇴직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임접숙 노암동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위기 가정을 구하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문화유산에서 요가해요'

익산시, 미륵사지 등서 운영 '힐링 요가' 큰 호응

고즈넉한 세계문화유산의 매력을 느끼는 힐링요가 프로그램 '요기서 요가해요'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왕궁과 미륵사지에서 백제의 숨결을 느끼며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해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백제왕궁과 미륵사지에서 '요기서 요가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힐링 요가프로그램은 '2021 문화도시 삼삼오오'에서 첫 기획을 내놓은 시민모임 '고백요가팀(대표 김현문)'이 실행을 맡고 있다. '문화도시 삼삼오오'란 시민들이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산 문화도시 대표사업이다. 시민이 발굴하고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수요자 감성을 저격해 선착순 사전 접수자 20명 외에도 현장에서 매회 차마다 30~4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아외에서 요가를 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세계유산에서의 요가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고 가족들과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현문 고백요가팀 대표는 "동료들과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며 "세계유산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요가를 알려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미륵사지에서 6월 17일과 24일 2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들과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현문 고백요가팀 대표는 "동료들과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며 "세계유산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요가를 알려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미륵사지에서 6월 17일과 24일 2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의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 체결

남원의료원은 지난 14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의료안정망을 구축하고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과 복지센터, 센터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지원 △기타 보건 의료복지통합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협력하게 된다. 한편 박주영 원장은 "복지센터 및 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계남면민의 날 행사 성황리 마무리

장수군 계남면은 15일 백화마당에서 '제33회 계남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계남면(면장 최재원)이 주최하고 계남면 체육회(회장 김을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최홍식 장수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 장정복 군의회 의장, 박용근 전북도위원을 비롯해 각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지역주민, 자매결연을 맺은 진해구 자은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백화풍물단의 신명나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춤바반스단의 화려한 댄스, 백화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과 민민의 장 시상, 체육대회, 노래 자랑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계남면민의 날에서는 문화체육장에 백화합창단, 애향장에 김경엽 씨, 산업공익장에 이우기 씨가 각각 선정돼 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체육대회는 고리걸기, 율놀이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민민노래대창과 이벤트 행사로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져 주민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을수 체육회장은 "성대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계남면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몸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남면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는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보건교사회 나치병 학생의료비 지원

전북보건교사회(회장 소지원, 전주용홍중)가 나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보건교사회는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서거석 교육감을 면담하고, 나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교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나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올해 5명의 학생을 선발해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전북보건교사회는 지난 23년간 총 99명의 나치병 학생에게 9,9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긴 세월 동안 제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보건교사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수=성기자



며 "우리 학생들이 힘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긴 세월 동안 제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보건교사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수=성기자

전북도의회, 2023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북도의회(회장 국주영)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의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중정초등학교 5~6학년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나인권(김제) 농산염업제위원장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 배우고, 학생들의 꿈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청소년 모의의회를 두차례 열었으며, 16일에도 전주우전초등학교 4~6학년 25명이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한 예정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윤 기자

김제농협 대·내외 경제상황 등 신속대응 대책회의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13일 조합장실에서 이정용조합장 및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김제농협 쌀 조공대표, 기획총무, 신용, 경제, 부시장과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 대응하고 사업영향 및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목표손익 달성과 건전결산을 위해 손익관리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으며,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며 농업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정용조합장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장수 계북면지사협,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 봉사

장수군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우상, 김재수)는 14~15일 2일간 계북면 원양교회에서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 봉사'에 동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봉사는 서울 소재 의료법인 실로안안과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7명으로 꾸려진 봉사단이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 안과진료, 상담 검안, 실명예방, 간단한 처치 등 무료 안과 진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진료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나서 대기자를 줄세우기, 검사 보조, 거동불편 어르신 차량 이동 서비스 등을 도왔다. 무료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눈이 불편해도 지역에 안과가 없어서 인근 지역까지 나가봤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무료로 안과 진료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역 광장에 관광 홍보판 설치

남원시는 남원역 광장에 남원의 대표 관광지 및 축제를 담은 홍보판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시의 이번 홍보판 설치지는 남원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선사하고 시정 주요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역 광장 앞에 총 길이 52m(가로 11m, 높이 8m / 8개) 가림막과 야간 조명을 설치해 24시간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홍보내용은 고흥하랑기부제, 김병중 미술관, 2023 남원FAI 국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남원에촌, 광한루 등 시 주요 관광지 및 축제가 담겼다. 김병례 남원시 홍보계장은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이 처음 마주하는 남원역 광장 앞의 홍보판인 만큼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 동진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이종화)는 지난 14일 김제시 용지면에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64)의 자택을 방문해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동진지사 직원 25명은 그 동안 전통월세어 출입이 불가한 현관 출입문과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안방 출입문과 창문 2개소 샷시도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집 주변 잡초제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솜복지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된 집을 고쳐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진지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가구를 선정하여 집 고쳐주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